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
2011년 5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디자인브랜드과 박종원 과장(02-2110-5101), 김시덕 주무관(02-2110-5107)
로봇산업과 박정성 과장(02-2110-5619), 이중엽 사무관(02-2110-5630)

디자인이 로봇의 미래를 디자인한다!

- 디자인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Design of the Future 사업 추진 -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:최중경)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**로봇분야에 디자인을 융합시켜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제품개발을 주도하는 「미래의 디자인(Design of the Future) 사업」**을 실시하기로 하고 5.17(화) 해당 과제를 공고함

＊ 공고 과제명 : 로봇의 Future Envisioning을 통한 R&D 사업성과 제고방안

□ 이번 로봇분야에서 금년중 시행될 **「미래의 디자인(Design of the Future) 사업」**은

○ **소비자의 잠재적 니즈(Needs)를 판단**하고 **미래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예측**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로,

○ 5~7년후의 소비자 생활상(Life Style)을 예견하는 선행 디자인을 통해 **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제품 콘셉트를 개발하는 것임**

＊ 필립스, 지멘스,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예측을 바탕으로 선행 디자인을 통해 新제품을 개발하는 **디자인 주도 기술개발 프로세스**를 정착

＊ 로봇분야 미래의 디자인(Design of the Future) 사업을 통해 혁신적 로봇제품에 대한 선행디자인과 미래 컨셉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도 R&D 기획에 반영할 예정

□ 그간의 정부 **기술개발(R&D) 사업이 기술 공급자 위주로 진행**되어 실제로 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으나,

○ 이번 미래의 디자인(Design of the Future) 사업을 통해, **기술 개발 이전에 소비자와 시장의 잠재적 수요(Needs)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**하고 **新기술 개발시 충실히 반영**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시장에 실제로 파급력이 있는 R&BD(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)가 실시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□ 한편,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(R&D) 사업이 시장에서 환영받는 실질적인 R&BD로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**디자인과 R&D 융합을 금년부터 대폭 강화**할 방침

○ **금년중 지경부에서 실시될 기술개발 과제중 총 46개 기술개발과제**(산업융합원천기술사업중 의료기기분야 등 7개사업,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중 요트분야 등 39개 사업)에 **디자인 참여를 적극 유도**하고,

○ **우수 기술연구소 지원사업**(ATC : Advanced Technology Center) 지원 대상을 디자인분야로 확대하여 **디자인 연구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**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이러한 **디자인과 R&D의 융합을 통해 R&D 과제의 실제 사업화**(40%대) **비율을 증대**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＊ 붙임 : 디자인 융합 R&D의 국내외 현황

<참고 : 디자인 융합 R&D 국내외 현황>

가. 국내현황 : 삼성전자

□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**「CNB(Create New Business) 디자인」 개념 도입으로 경영전략에 디자인이 적극 참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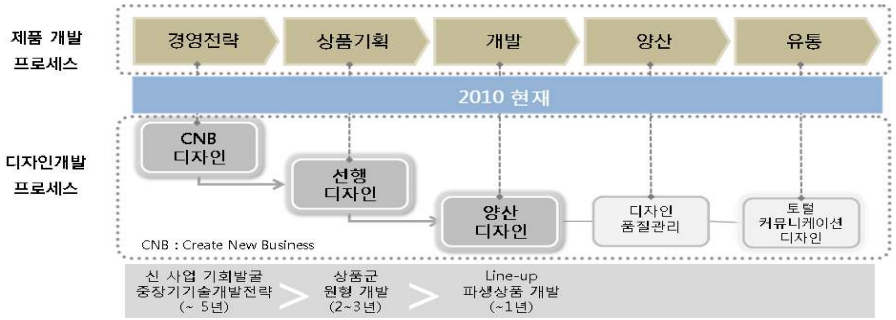
○ 4세대 R&D 개념을 도입하여 **연구개발 단계부터 시장 지배적 디자인 창출** 추구

□ **디자인의 역할이** 양산 단계에서 **제품개발의 최초 단계인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**

○ **기술로드맵과 병행**하여 **미래 시나리오와 선행 디자인 발굴**에 중점을 둔 **제품개발 프로세스** 운영

-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경영학, 심리학, 인류학, 사회학, 인지과학 등의 **다학제적 전문가**가 참여

< 삼성전자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>



미래 시나리오 발굴 — 상품기획방향 결정
디자인 인사이트 — 원형디자인 확보
기술 로드맵 — 개발역량 확보
스마트 오피스 — 휴대폰

나. 국외현황

□ **지멘스(독일)** : Picture of the Future

○ 현재 기술·제품군에 대한 심층조사와 향후 기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(Picture of the Future)하여 공유

< Picture of the Future 프로세스 >



○ "Picture of the Future" 를 통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 실시

- 이를 통해 **미래의 기술상과 발전가능성, 미래 소비자의 기대와 사업가능성 예측**에 도움을 주는 미래 환경 경험을 제공

□ **필립스(네덜란드)** : Vision of the Future

○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년에 걸쳐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

○ 디자인연구소 주도로 **10년후 라이프스타일을 4가지 분야**(Pesonal, Mobile, Domestic, Public)로 나누어 **제품과 서비스 콘셉트 제시**

- 미래 예측한 **27개 항목중 23개가 제품으로 개발**(약 85% 성공율) 되었으며 **Mobile 제품군은 현재 대중화 단계**

< Vision of the Future 성공사례 >



○ **영상통화** : 카메라 장착 기기와 광통신망 구축으로 원거리에서도 휴대폰으로 혹은 갤럭시탭 등의 기기로 영상통화가 가능





○ **원격 업무처리** :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 등의 기기로 손쉽게 스케줄 확인, 업무 처리 등이 가능





○ **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** : 2010년 10대 히트제품(삼성경제연구소)으로 선정될 만큼 일반화되었으며, 무선 인터넷, 원격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어디서든 위치 검색 가능